

2023년 11월

Vol.41

# 문화서구



지역화 교재로 서구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아이들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 Contents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 03 인천서구문화원 이모저모  
- 특집 인터뷰, 서구에 진정성을 더하고 진심을 다하는 서기옥 선생
- 04 지난 행사 자세히 보기
- 06 2023 지역문화박람회 in 동해  
- 지역다움 보여주고 다음 지역을 기다리는
- 08 문화칼럼  
- 봉림동 사람들의 마을교과서 이야기 \_ 용지초등학교 교장 이정아
- 10 서구기록가와 지역읽기  
- 느린 우체통의 제일 빠른 시작, 인천 서구 영종대교휴게소 \_ 서구기록가 채효영



## 문화서구 Vol.41

발행처 |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발행일 | 2023년 11월 20일  
발행인 | 정군섭  
편집주간 | 서덕현  
편집기획 | 임혜선, 노승채, 김시훈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464번길 15  
(쓰리엠타워 7층)

전화 | 032-582-4341  
팩스 | 0502-582-4742  
이메일 | isgcc@naver.com  
WEB | www.inscc.kr  
※ 문화서구 간행물의 글, 사진, 기타 자료의  
저작권은 인천서구문화원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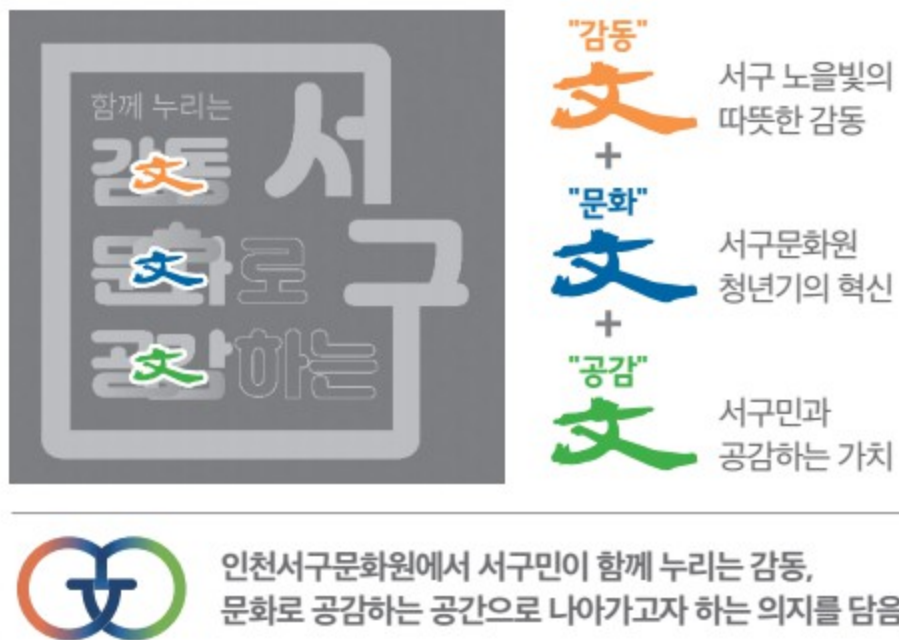
## 인천서구문화원 이모저모 특집 인터뷰

서구에 진정성을 더하고  
진심을 다하는 서기옥 선생

지난 11월 6일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에서  
태어나, 40년간 서구를 가꾸며 일한  
서기옥 선생님을 만나보았다.



서구문화대학 사진반 수료 / 서구기록가 교육 수료  
인천서구문화원 멤버십 서동이 회원 / 인천 서구 기억저장소 명예활동가



### 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961년에 서구 가정동에서 태어나 서구에서 일하며 가정을 꾸리고 현재 은퇴하여 자유롭게 사는 서기옥이라고 합니다. 특집 인터뷰라고 하셔서 긴장이 되는데요, 늘 오가던 문화원이지만 오늘따라 떨리네요. 저는 서구에서 일하면서 서구가 변해온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엔 개발되고 길이 뚫리고 생활 환경이 좋아지는 부분만 신경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는 것, 변화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구기록가나 인천 서구기억저장소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되었고 현재 인천서구문화원에서 지역활동가로 인생 2막을 즐기고 있습니다.

### ① 인천서구문화원에서 오랜기간 활동하셨는데, 애정도 남다를 것 같아요. 그동안 활동 경험을 이야기해주세요.

제가 처음 인천서구문화원을 경험한 건 2002년이었어요. 7월에 본격적인 시작 후 『천마와 아기장수 외』향토지를 보면서 다양한 지역 자료가 보존될 것이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2002 월드컵을 즐기고 있을 때 저는 문화원의 설립과 시작을 볼 수 있었던거죠. 이때의 문화원

은 다른 지방문화원과 같은 CI를 쓰고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2022년 개원 20주년을 기념하여 새로운 CI와 슬로건으로 서구다움, 지역다움을 보여주기 위한 청년기를 시작했죠. 그리고 최근 2023년 대한민국 문화원상 종합경영분야 최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도 수상하여 문화원의 시작과 성장을 지켜본 구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문화원상 수상에서 우수사례로 지역학, 지역기록과 아카이브 사업이 논의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서구문화대학에서 사진도 배우고 서구기록가 교육을 수료한 뒤 인천 서구 기억저장소의 필요성을 문화원 식구들과 함께 논의한 경험이 있어요. 그동안 살면서 보존되지 못했던 서구 기록들의 아쉬움과 지역 주민 참여를 논의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직원분들이 사업으로 실행시켰죠.

### ① 앞으로의 계획과 바라는 점으로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문화원에서의 활동목표와 문화원에 바라는 점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앞으로 기록활동가, 지역연구자로서 인천 서구 기억저장소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서구민들에게 알리고 기록물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곳곳에 찾아가는 기록활동과 인터뷰 뿐 아니라 기존에 보존되었던 서구 기록물들이 구민에게 공개되고 확산 되도록 그 관심을 놓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문화원에 바라는 점은 2022년 문화원 멤버십 제도가 개편되었는데 아직 모르는 구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천서구문화원 멤버십에 가입하면 도약이-동동아-서동이 등 활동 기간과 프로그램 참여율에 따라 혜택이 있습니다. 공식 기념품부터 발간자료, 웹소식지 이메일 발송 등 멤버십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르다고 하니 많은 구민이 참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인천서구문화원에 많은 서구 자료가 있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인천서구문화원  
멤버십



# 지난 행사 자세히 보기



### 기획방향과 목적

- 인천 서구 지역의 역사, 문화, 경제, 산업, 생활 등을 담은 보조교재 제작
- ※ 공모처 제안 필수 키워드 : 경제, 산업, 직업
- 초등학교 3학년 기준 눈높이로 집필
- 1부(60페이지) : 서구의 자연, 역사와 문화
- 2부(60페이지) : 경제와 산업

정책의 방향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지역화 교육의 거점기관으로 성장하고 지역의 요구에 따라 지역 선생님과 협업 관계로 양질의 지역화 교육을 추진하며 사회과 교육과정에 지역문화원이 참여함으로써 지역에 꼭 필요로 한 조직으로 나아가기 위함.

### 지역화 보조교재 제작 사업 편집기획자문위원회

- 학교 교육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
- 2024년 신규사업(전문강사 파견형)을 연계해 준비할 것
- 좋은 영상 자료를 유튜브에 업로드 하여 감사파견형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자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2023. 지역주제 콘텐츠 사업 “인천 서구 지역화 교보재 제작 사업” 시작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는 2023 지역주제 콘텐츠 사업 ‘인천 서구 지역화 교보재 제작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이 전부터 사회과 교육 과정에서 지역화 교육의 필요성에 지방문화원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정책사업의 첫 움직임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최정학 편집위원장이 해당 사업의 컨설팅과 전반적인 집필 기획을 설정하였고 편집기획자문위원회와 집필위원회 회의를 거쳐 총 120페이지 분량의 인천 서구 지역화 교보재 『인천 서구의 생활』이 제작됩니다. 1부 역사와 문화 2부 경제와 산업, 산업을 주제로 초등학교 사회교과 3학년, 4학년을 비롯한 서구지역 어린이 청소년 모두가 학습할 수 있는 보조교재로 배부될 계획입니다.

2



## 2023. 군구레마여행 상품개발 지원사업 “가좌!동네 한 바퀴” 개최

10월 10일(화) 인천 2호선 가재울역 대합실에서 가좌동의 과거 사진 20점을 전시하는 ‘가좌 컬렉션’을 시작으로 ‘가좌!동네 한 바퀴’가 개최되었습니다. 15일에는 신진말 일대에서 초등 그림대회, 거리장식 및 포토존이 운영되었으며 코스모 40에서 진행된 플리마켓과 ‘하와이안 훌라춤 수업’, ‘스케이트보드 스쿨’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결들인 ‘SUNDAY IS’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가좌!동네 한 바퀴’는 인천 서구 가좌동의 모습을 새롭게 인식시켰을 뿐만 아니라, 방문객 조사에서 향후 가좌동에 재방문할 의향에 76.6%의 긍정적인 결과를 기록하여 명소로서 인천 서구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3



## 2023. 지역학자료수집사업 “서구의 구수한 큰 맛, 서곶옹기展” 성료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서구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이 주관한 ‘서구의 구수한 큰 맛, 서곶옹기展’이 10월 15일(일)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2019년부터 백석동 한들지구 개발당시 주민들로부터 기증받은 지역 자료 중 옹기를 선별하여 전시한 ‘서곶옹기展’은 실제 옹기를 사용한 주민들의 인터뷰, 서곶옹기의 특징과 발달이유, 문양과 재료, 서곶옹기의 장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엮어내었으며, 옹기 마그네틱 체험공간을 운영하였습니다.



## 4



## 2023.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 “국악 놀이터 미니음악회” 개최

2023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 ‘국악 놀이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인천문화재단과 인천서구문화원이 주관한, 국악 장르로 만들어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평소 아이들이 접하기 힘든 국악과 전통놀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기획한 ‘국악 놀이터’에서는 정간보와 장단에 대해 배우며 소고를 연주하고 전통 놀이를 통해 아이들이 직접 장단과 민요를 만들고 감상해보는 수업이 약 한 달여간 진행되었습니다. 10월 21일(토) 인천서구문화원 캠프1, 2에서 열린 ‘국악 놀이터 미니음악회’는 아이들이 직접 만든 민요연주와 강사 선생님들의 국악연주 감상, 더불어 국악기를 직접 만지고 체험해보는 시간으로 운영되었습니다.

## 5



## 2023. 지방문화원 특성화사업 “어린이 극장 관해각” 공연 성료

‘어린이 극장 관해각’은 지역을 연계한 연극형 프로그램으로 인천 서구가 좌동에 위치한 350년 고택 ‘관해각’에 담긴 지역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연극을 제작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 18명이 관해각의 실거주자인 ‘심재갑’선생님으로부터 관해각과 지역의 옛날이야기를 직접 듣고 연극 놀이, 연극 만들기 활동 총 18회차를 통해 대본과 연기에 직접 참여하여 연극을 제작하였습니다. 연극은 10월 29일(일) 17시에 청라블루노바홀 공연장에서 공연되었으며 200여명의 관람객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종료되었습니다.

## 6



## 2023. 서구청춘합창단 “갈채” 제10회 정기연주회 성료

인천광역시 서구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이 주관한 2023 서구청춘합창단 ‘갈채’의 정기연주회가 11월 7일(화) 청라블루노바홀 공연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만 60세 이상으로 구성된 합창단 ‘갈채’는 2월 신규 단원을 선발한 후 매주 정기적인 연습을 통해 음악을 말하고, 듣고, 표현하는 방법을 교육받았습니다. 제10회 정기연주회에서는 지난 7월 제10회 골든에이지 금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하게 해준 ‘하늘빛 그리움’, ‘Didn’t My Lord Deliver Daniel’를 포함한 9곡과 앵콜 1곡을 연주하여 관중에게 합창의 아름다움과 감동을 선사하였습니다.



2023  
지역문화박람회

지역다움 보여주고  
다음 지역을 기다리는



제2회 지역문화박람회in동해 개막식(동해 묵호항 여객터미널 광장)에서 김태웅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 지역문화박람회 in 동해

2022년 9월 한국문화원연합회 60주년을 기념하는 비전 선포식에서 지역문화박람회 정례화 개최가 공식 발표되었다. 이번 2023. 제2회 지역문화박람회in동해는 지역 단위, 지방문화원이 한국문화원연합회와 공동 주최하는 첫 지역문화박람회로 'K-Culture 뿌리를 만나다'를 테마로 하여 전시, 경연, 공연, 체험, 학술 컨퍼런스 등이 진행되었는데 메인 행사장인 묵호항 여객터미널 광장뿐 아니라 동해시 명소, 문화공간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지역문화박람회 참석을 목적으로 동해를 방문하지 않아도 우연히 박람회 현장을 마주치거나 동해의 명소에서 지역 문화와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에 한국문화원연합회, 동해문화원 관계자의 많은 고민을 느낄 수 있었다. 인천서구문화원 또한 지역에서 개최하는 첫 지역문화박람회의 과정을 함께하고 231개 지방문화원이 참여한다는 의미로 34명의 임원, 서구민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였다.





지역문화쇼케이스 :  
K-Culturex지역문화전, 소멸 위기의 지역문화전, 강원특별자치도·동해시관을 보여준다.



YOGA 무코랑 놀자 :  
목호항 수변공원에서 김나경(강원대학교 체육학 박사), 여동구(요가 마스터), 이정은(요가마스터)의 일출요가 원데이 클래스로 신청자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지역문화쇼케이스의 지역문화의 숨겨진 이야기, 영상, 지방문화원의 조사 자료에서 '한데 모은' 지역문화도 느낄 수 있었으나 행사를 즐길수록 이번 박람회의 중심은 'in 동해'라고 생각한다. 동해의 기록물 전시를 지나 논골담길 이야기 음악회에서 목호항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담화 골목을 걸어보고 YOGA 무코랑 놀자에 들러 지친 몸을 풀어준다. 다시 행사장으로 돌아가면 韓(한) 소리 듣고 刺(날)뚫다 주제 공연과 동해비치마켓의 체험이 기다리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다움, 동해 지역을 온전히 느끼고 행사가 전하고자 하는 동해의 매력을 실 새 없이 쌓아가는 3일이었다고 본다. 앞서 말한 한데 모은 지역문화가 아니라 in동해, 동해의 지역다움을 보여주는 행사였기 때문에 다음 지역이 궁금해지는, 또 다른 매력의 지역문화를 기다리는 지역문화박람회로 기억될 것이다.

박람회(博覽會)는 한 나라 또는 지역의 문화 상태, 산업상태 등을 소개하기 위해 관련된 사물, 상품을 진열해 놓은 곳을 의미하고 많은 사람이 관람하도록 운영한다. 지역문화를 소개하고 관람할 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지역문화박람회가 정례화 개최되면 한국문화원 연합회와 전국 지방문화원의 대표 행사로 인식되어 이 박람회가 지방문화원의 존재를 알리고 많은 사람이 각 지역의 매력적인 지역문화를 고루 경험하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리고 문화원이라는 틀에 갇혀서 다양한 지역문화를 한데 모아 보여준다는 착각 속에 지역문화쇼케이스 전시를 관람했다.

논골담길 이야기 음악회는 :  
목호등대광장에서 로컬크리에이터 사례와 목호에 이야기를 노래와 함께 들려준다.



# 지역문화박람회 in ( )



## 문화칼럼

# 봉림동 사람들의 마을교과서 이야기

용지초등학교 교장 이정아

미래 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학교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교육의 장이 펼쳐져야 한다. 그 새로운 교육의 장이 바로 아이들이 살아가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다. 창원한들초, 학부모, 여러 지역사회 단체가 함께 참여한 ‘봉림동 마을 교과서’ 제작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의 학교 교육 참여에 하나의 작은 연결고리가 되었다.

창원한들초는 2018학년도에 행복학교로 지정된 후 모든 교사들이 학년별 교육과정 내용을 재구성하여 마을 둘러보기, 마을 사람들의 직업 살펴보기, 우리 지역의 문제 찾아서 해결방안 찾아보기, 마을의 생태 살펴보기 등 다양한 내용과 형태로 마을교육과정을 시도해왔다. 그 일환으로 이명원 선생님을 비롯한 3학년 교사들이 사회과의 문화유산과 옛이야기 수업을 하면서 봉림동 관련 내용을 담은 워크시트지 형식의 자료를 만

들어서 활용하였고 아이들을 데리고 직접 현장답사도 나갔다. 2019년에는 워트시트지 내용을 좀 더 보충하여 ‘내 손으로 만드는 사회교과서’라는 제목으로 제본한 책 형태의 학습 자료를 만들어 활용하였다. 그 과정에서 지역의 내용을 담은 좀 더 체계적인 완성도 있는 교과서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바람이 늘 있었다. 그 결과물이 바로 2021년 2월에 완성된 봉림동 마을 교과서이다. 마을교과서는 수업시간에 활용하는 『내 마음 속에 저장 우리 마을 봉림동』 교과서 1권과 학습 내용에 따른 5권의 ‘나빌레라길’ 현장 탐사 코스북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빌레라길은 ‘봉림동 나들이길, 봉림동 복을 빌길, 봉림동 옛둘레길, 봉림동 라온 배움길, 봉림동 우리다움길’에서 한 자씩 따와서 이룬 것이다.

봉림동 마을교과서 구성





봉림동 마을교과서 추진위원회  
우리 마을은 내가 소개한다

## 봉림동 마을해설사 모집

우리 마을 아이들은 마을에서 배웁니다.

- 모집 인원 20명
- 모집 대상 봉림동 마을주민
- 모집 기간 2020년 11월 10일부터 접수
- 최종 선발 2020년 11월 17일 오전 10시 (계별면역)

- 모집 요건 교육 이수 후 마을해설사 활동 가능한 분  
도보이동 2~3시간 가능한 분  
학교교육과정 진행 시 마을해설사 가능한 분
- 특별 혜택 교육비 무료, 활동 시 강사수당 지급예정
- 접수 방법 온라인 링크 접수  
(<https://forms.gle/EgplvEmc6ubgk39uK3>)

### Q&A



### 많이 물어보시는 Q&A

Q 교육장소는 어디인가요? A 봉림동주민자치센터 2층

Q 교육일정 및 수업차시는 어떻게 되나요?

| 1차시         | 2차시      | 3차시      | 4차시      | 5차시      | 6차시      | 7차시      |
|-------------|----------|----------|----------|----------|----------|----------|
| (봉림동주민자치센터) | (마을교과서)  | (마을교과서)  | (마을교과서)  | (마을교과서)  | (마을교과서)  | (마을교과서)  |
| 11/19(목)    | 11/20(금) | 11/26(목) | 11/27(금) | 12/03(목) | 12/04(금) | 12/10(목) |
| 10~12시      | 14~16시   | 10~12시   | 10~12시   | 10~12시   | 10~12시   | 09~11시   |

※ 참가일정은 2020.11.19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문의 연락처는?

A 대표전화 010-6382-8842 봉림동주민자치위원회(055-287-9544)  
봉림평생학습센터(055-265-9877)  
사림평생학습센터(055-261-1034)

봉림동 마을해설사 프로그램 운영

창원한들초 교사와 마을학교 한들산들 대표가 함께 마을교과서를 만들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 여러 기관에 문의를 하던 중 '마을교과서 만들기'가 경남 1번가 정책제안의 의제로 선정되었고, 경상남도 지역문제해결플랫폼에서 경남대학교 링크사업단을 매칭해 주어 '봉림동 교과서 만들기'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다. 참여하게 된 기관은 창원한들초, 마을학교 한들산들, 봉림동주민자치위원회, 봉림평생학습센터, 사림평생학습센터, 경남대학교 링크 사업단,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다.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하다보니 처음에는 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아 모두가 모든 것을 함께 하는 시기도 있었으나 점차 각 기관에서 잘 할 수 있는 활동 위주로 역할을 찾아가게 되었고 서로 간의 존중과 협력으로 모든 과정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마을교과서는 봉림동 관내에 있는 창원한들초, 봉림초, 상북초에서 3학년 사회과 수업 시간에 사회 교과서와 함께 활용하고 있으며, 3학년 외 다른 학년에서는 교과 및 창체 시간에 코스북을 활용한 현장 답사 활동에 활용되고 있다. 처음 2021학년도 활용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2023학년도에 이르기까지 매년 수정, 보완을 거쳐 새롭게 제작하여 활용되고 있다. 더 나아가 학교와 문화해설사 단체가 협력하여 마을생태, 환경보존 등으로 주제를 확장하여 답사와 체험을 포함한 교육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든 마을 단위의 교과서가 정규 수업 시간에 활용됨으로써 학생들의 실제적 배움에 기여하게 되고 상향식 교육과정 운영의 소중한 사례가 되었다. 또한 단위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이 지역의 다른 학교로 확대될 수 있으며 여러 학교의 연대 가능성과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봉림동 마을교과서 사례와 같이 마을교육과정이 지속성을 가지려면 마을에서의 기반이 마련되고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일부 교사들의 열정과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마을교육과정은 그 교사가 학교를 떠나면 지속되기 어렵다. 마을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고 마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여야 학교의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흔들림 없이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23년 현재 마을교과서를 집필했던 두 명의 교사는 모두 학교를 옮겨 창원한들초에 근무하고 있지 않지만 교과서 제작 시에 함께 배출되었던 봉림동 마을해설사들이 매년 꾸준히 양성되고 활동에 참여하고 있어 봉림동 마을교과서는 꾸준히 잘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번 구축된 네트워크가 끊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교육 네트워크는 더욱 확장되고 견고해질 수 있으므로 학교와 지역은 작은 일이라도, 가끔이라도 함께 하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과정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교육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개별 학교나 교사 개인이 지역사회와 무언가를 하기는 너무나 막연하고 힘든 점이 많다. 시군 단위의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미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각 학교에 안내가 된다면 지역사회의 교육 참여가 훨씬 쉬워질 것이고 교육력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서구기록가와 지역읽기

# 느린 우체통의 제일 빠른 시작, 인천 서구 영종대교휴게소

서구기록가 채효영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인천국제공항은 영종도에 위치하고 있는 국제공항이다. 물론 김포공항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여행과 이동을 하고 있지만, 인천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항이기도 하며 세계적인 공항이기도 하다.

지방과 서울에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을 가다 보면 가장 마지막으로 만나는 휴게소가 있는데 이곳이 인천 서구에 위치한 영종대교휴게소이다. 이미 너무나도 유명해서 각종 예능프로그램과 각종 미디어에서도 많이 다룰 정도로 유명한 휴게소이기도 하다.

영종대교휴게소는 고속도로 휴게소로서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경인아라뱃길 여객터미널, 아라뱃섬과 바로 인접해있어 관광과 쉼터로서의 역할도 함께 병행하고 있는 휴게소이다. 공항을 향해 가는 바쁜 걸음을 잠시 멈추고 시간에 쫓겨 마음에 급해지는 여행길에 잠시나마 여유를 느끼게 해주는 곳이기도 하다.

경인아라뱃길 여객터미널을 통해  
도보로도 방문이 가능하다.



고속도로 본연의 역할도  
충실한 영종대교휴게소

그러나 이렇게 마음이 급해지는 이곳에 ‘느림의 미학’을 느껴볼 수 있는 ‘느린 우체통’을 처음 시작한 곳이 영종대교휴게소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지금은 대한민국 곳곳에 ‘느린 우체통’을 시행하고 진행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지



만 처음 기획하고 시작한 곳이 가장 바쁜 마음으로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있는 인천 서구에 있는 '공항가는 길'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서구에 살고 있는 한 구민으로서 놀랍고, 재미있으며, 아이러니하게 느껴진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그리고 SNS으로 이어지는 스피드시대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잠시나마 삶의 속도를 줄이고 나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마음속에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느린 우체통이다. 이런 느린 우체통의 시작은 2009년 5월 영종대교기념관 (現 영종대교휴게소)에 설치된 3대의 우체통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느린우체통의 원조이며 인천서구를 대표하는 명물중 하나로 영종대교휴게소를 유명하게 해주었다.

영종대교휴게소는 대한민국 최초의 느린우체국이 시작된 곳이다.



휴게소 외부와 내부공간을 활용하여 1년내내 이용이 가능하다.

손글씨가 주는 아날로그 감성과 1년이 지난 시간여행을 엽서를 통해 '타임캡슐'을 개봉하는 것과 같은 반가움을 접하게 되면서, 이러한 행복하고 감성적인 기운의 느낌이 전국에 널리 퍼지게 되고, 이러한 기운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문의와 호응을 통해 다양한 관광지와 명소 등에서도 하나, 둘씩 늘어나 2023년 현재에는 느린우체통이 500개 이상 설치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계속 발전하는 느린우체통은 다양한 업종의 상호와 간판에서도 사용되고, 음반(2018, 윤하)까지 발매되면서 아날로그적 감성을 더하며 발전하게 되었다.



서해바다를 바라보며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느린우체통

영종대교휴게소의 느린우체통은 1년 내내 편지쓰기가 가능하다. 1층 외부공간에 설치된 느린우체국통은 24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휴게소 영업이 마무리되는 시간 이전에는 2층에 있는 느린우체통과 전용 우체통박스를 통해 사용 가능하다. 그리고 엽서는 1층 편의점에서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엽서의 발송 비용은 영종대교휴게소의 관리를 담당하는 '신공항하이웨이'에서 부담하고 있다.

우리는 흔히 '내일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연말, 연초를 보내면서 많은 결심을 하고 1년동안 어떻게 보낼지 많은 계획을 세우며 다짐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1년이 지난 후에 반성하고 돌아보는 자신을 마주하게 된다.



나의 1년 뒤 모습과 마주하게 될 현재의 '나'의 모습을 담은 엽서

이제 2023년이 연말을 향해 가고 있는 이때, 느린우체통의 시작을 알렸던 인천서구 영종대교휴게소의 석양을 바라보며 1년이라는 시간 이후에 어떻게 변하고 바뀌게 될지 모르는 나의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한편의 손글씨와 엽서를 통해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 2023년 제28회 인천 서구 구민백일장

**대상** 인천 서구 연고자(거주자, 직장, 학교 등)  
**시제** 우산, 보름달, 회화나무, 마술

시 상 식

**11월 25일(토) 14:00** 인천서구문화원 캠프1, 2  
수상발표 | 10월 23일(월) 10:00 서구문화원 홈페이지 게시

서구문화원 문화사업팀 070-4681-7276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 찾아오시는 길

인천 서구 염곡로464번길 15, 가정 쓰리엠타워 7층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하차

간선 버스: 1, 202, 3-2, 42, 46

가정역 하차

간선 버스: 12, 13, 2-1, 202

지선 버스: 584, 591-1

광역 버스: 1000, 9300



인천 지하철 2호선 가정역

4번 출구에서 417m (도보10분)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032-582-4341

NAVER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검색창에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을 검색해보세요!

문화예술행사, 지역 정보, 운영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독자 상품 이벤트

참여방법 아래에 구글폼 링크 접속 → 퀴즈 정답풀이 → 제출

마 감 2023년 11월 30일

발 표 2023년 12월중 개별안내

당첨인원 10명

문 의 문화경영팀 070-4681-7275

